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학습동기가 낮은 자녀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박 태 영 박 진 영[†]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통제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낮은 학습동기를 보이는 사춘기 자녀의 상담을 어머니가 의뢰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사춘기 자녀들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사춘기 자녀로 인해 증가된 가족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분석방법 중 대화내용 분석을 하였고 대화내용의 서술과 탐구 분석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 매트릭스(Effect Matrix)와 시간 변화에 따른 메타 매트릭스(Time-ordered Meta Matrix)를 사용하였다. 동시에 가족치료의 변화과정과 관련하여서 초이론적 모델을 분석의 틀로 활용함으로써 내담자 가족이 변화하는데 있어 5가지의 단계에 따른 변화의 내용과 상담의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가족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은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시도하게 되자 가족구성원 간의 변화가 일어났고 궁극적으로 낮은 학습동기를 보이는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치료자의 관점에 따라 아버지가 인식단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자 자녀들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가족구성원 중 어느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신이 변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가족 전체에 대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어 : 가족갈등, 가족치료, 낮은 학습동기, 사춘기 자녀, 의사소통, 질적연구 (대화내용 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진영,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56-743)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1
Tel : 010-4100-2509, E-mail: pjyshop@hanmail.net

가족생활주기상에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은 증가된 가족갈등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가족이 발달주기상의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들어섰을 때 새로운 상황에 맞는 변화의 시도 특히 자녀의 성장에 알맞은 형태로 부모-자녀의 구조적 유형이 변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태영, 2002; 박태영, 김태한, 2008). 이러한 새로운 상황의 변화와 적응은 가족기능이 건강할 때에 더욱 쉽게 형성될 수 있는데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가족분위기와 정서는 의사소통과 관련이 깊다(김영희, 안상미, 2008). 즉, 만족스러운 가족분위기와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족은 새로운 상황의 변화와 적응에 있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관계를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자녀는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벽과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에서 아버지의 엄격한 규칙과 일방적인 의사소통방식 및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역기능적인 부부관계가 자녀의 도벽과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박태영, 2007),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원가족에서 사용하였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모자관계에서 반복되고 있었고 이러한 모자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곧 부정적인 모자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박태영, 김태한, 2008). 한편, 가출청소년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에서 딸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아버지의 폭력적 행동과 일방적인 의사소통방식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과 심각한 불안 및 자녀의 행동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방식이 자녀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표현방식은 원가족에서 내려오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박태영, 은선경, 2008). 성폭력을 당한 여중생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를 보면, 친척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성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폭로하지 못한 배경에는 부모의 회피하는 의사소통방식과 이유는 묻지 않고 야단만 치는 아빠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 그리고 편들어 주지 않는 엄마의 표현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박태영, 박소영, 2007). 폭식장애를 가진 딸에 관한 가족치료 사례에서도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관계에서의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왕따 피해경험, 부모의 이혼문제와 부모에 대한 불신이 딸에게 불안을 조성하였고 그러한 불안으로 인하여 폭식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Park, Cho, & Seo, 2006). 마지막으로 마리화나를 피는 아들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에서도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어머니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과 어머니의 미분화 그리고 남편의 원가족 문제가 아들의 마리화나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태영, 2009).

위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과 가족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과의 연관성인데 본 사례도 통제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낮은 학습동기를 보이는 사춘기 자녀의 상담을 이혼한 어머니가 의뢰하게 된 사례로서 가족 구성원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가족에게 가족치료를 실시하고 그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상담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가족치료 접근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사춘기 자녀로 인해 증가된 가족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낮은 학습 동기 등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가족관련 요인과 특성을 보면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김기태 외, 2006). 첫째, 가족구조의 결손인데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가족구조의 결손 자체가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가족구조의 결손이 있을 때 가족기능에도 영향을 주며 결손상태로 인해 일어나는 파생효과가 학교 부적응 발생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부적절한 양육환경이다. 산업사회의 특성에 따라 맞벌이 하는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방치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부모보다 일찍 귀가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소홀함이나 부재로 인하여 과제를 소홀히 하기 쉽고 집에 있기 싫어서 거리를 배회하다 보면 비행에 노출되고 접촉하는 양도 많아지게 된다. 셋째, 가족 구성원 개인의 문제이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누군가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격적인 결함을 갖거나 아버지가 알콜 중독이나 약물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저항력이 약한 청소년에게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상의 문제이다. 가족이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상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다섯째, 훈육의 부재 및 잘못된 훈육 태도와 방법이다. 가족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체계가 자녀체계에 대하여 훈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훈육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이에 대응하여 문제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이사나 부의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 위기적 사건의 경험이다. 가족의 갑작스런 변화는 청소년들의 적응 상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요인 중 청소년들의 문제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

지 못하는 기능적 해체 특히 부모-자녀 간의 빈약한 의사소통 문제,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통제와 훈육태도 등에 초점을 맞춘 많은 연구들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김기태 등(2006)에서도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훈육태도 (즉, 충분한 역할)와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청소년 문제를 예방 혹은 변화,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영미 등(2005)은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자녀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학업부진 등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박태영(2002)은 학교 부적응의 문제로 상담을 의뢰한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의 문제 원인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기인했음을 상담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덧붙여 사춘기 자녀 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사춘기 자녀의 부모가 더 이상 성공적으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허용하거나 자녀에게 필요한 권위는 전혀 행사하려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였다. 이는 곧 어떠한 경우든 모두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곧 낮은 학습동기 등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가족치료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돕는 개입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에 대한 이론적 준거들

본 연구에서는 의뢰된 가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MRI의 의사소통 이론을 활용하였다. 특히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적용으로 MRI의 의사소통 이론은 그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다양한 문헌을 통해 소개

되어 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서 박태영 (2006)은 폭식장애 등 자녀들의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가족들의 사례를 지금까지 시도해온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고 그 방식은 또한 부모의 원가족과의 문제로부터 기인했음을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밝혀냄으로써 MRI의 의사소통 이론의 효과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치료자는 본 사례에서 가족의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배다른 형제 관계인 두 자매간의 하위체계를 강화시킴으로써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기능적으로 증진시키는 치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가족의 재구조화를 시도하여 하위체계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한 것은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을 활용한 것이다.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

MRI에서는 가족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의 시도에 의해서 오히려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즉,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달되는데 하나는 어려움을 잘못 다루는 것이며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패와 똑같은 문제 해결 방식의 적용이다(Watzlawick, Weakland & Fisch, 1974).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감소시키려고 시도해 온 해결방법이 오히려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Goldenberg & Goldenberg, 2007).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기존의 해결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소개하는 일차적인 임무를 갖는다 (Weakland, 1993).

또한 MRI 모델은 의사소통과 체계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초점을 맞춘 단기치료접근법이다(박태영, 김혜선, 2008). 가족구성원들 개인의 역사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 내 관찰할 수 있는 현재의 상호작용(관계)에 초점을 두고(박태영, 2001)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이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사례는 가족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제해결방식을 계속 사용해왔음을 치료자가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는가와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관계의 변화까지 어떻게 유도해 내는가를 보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이란 것은 기존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서 탈피하고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사춘기 시기의 자녀들과의 효과적인 대화법의 바람직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일반적으로 구조주의적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의 문제나 병리증상이 가족의 역기능적인 구조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가족 하위체계 간의 너무 밀착된 가정은 개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기와 타인의 구별이 어려워지며, 또한 너무 경직된 가족의 경계는 가족 상호 간의 교류가 너무 부족해 결속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는 무엇보다도 첫째, 부모와 자녀 간의 명확한 위계질서 확립을 해야 하며 둘째, 부부의 연합과 일관성 있는 양육방식을 갖도록 개입하고 셋째, 가족체계의 상호교류 규칙을 재구조화시켜야 한다(김혜숙, 2008). 본 사례처럼 부모-자녀 간의 명확한 경계선이 지켜지지 않고 형제 하위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특정한 가족 구성원을 고립시키는 상호작용이 보이는 가족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치료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사례는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기에 걸쳐서 개별상담과 가족상담으로 진행되었다. 치료

에 참석한 가족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첫째 딸, 둘째 딸이었다.

연구질문

첫째, 가족치료를 통해 경험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상담 회기별 변화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초이론적 모델에 입각하여 본 가족의 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각 단계마다의 특성과 변화 과정은 일치하는가?

셋째, MRI 모델의 적용에 따라 각 가족구성원들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며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시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넷째, 가족 치료 후 가족의 대화 방식에 대한 변화된 모습은 어떠한가?

신뢰도 검증

Patton(2002)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자료, 이론, 방법론의 삼각화(triangulation)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연구자의 삼각화를 실시하였고 자료의 삼각화를 위하여 상담 녹취록과 상담 비디오 테이프, 상담 메모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Creswell(2005)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분명한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가진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선택되어지는 방법으로서 사례의 배경에 대한 맥락적 자료를 찾고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는 맥락 속에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를 탐색하는 것이며 이 경계 지어진 체계는 시간과 장

소에 의한 경계를 갖게 된다. 사례의 맥락은 사례를 그 상황에 놓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은 명료한 이론의 확인이나 명료한 이론에 대한 도전 혹은 그 이론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방황하는 아들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를 질적분석방법 중 대화 내용 분석을 하였고, 대화내용의 서술과 탐구분석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 매트릭스(Effect Matrix)(Miles & Huberman, 1994)와 시간 변화에 따른 메타 매트릭스(Time-ordered Meta Matrix)(Miles & Huberman, 1994)를 사용하였다.

한편, 가족치료의 변화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초이론적 모델(Prochaska & Norcross, 2002)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초이론적 모델은 클라이언트(혹은 내담자)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시하는데 전인식단계(precontemplation stage), 인식단계(contemplation stage),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 행동단계(action stage), 유지단계(maintenance stage)이다. 첫째, 전인식 단계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거나 병리적이라는 것으로 인식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 둘째, 인식 단계는 개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문제와 원인, 해결책을 이해하려고 하며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셋째, 준비단계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적인 기준을 통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는 개인들은 즉각 행동을 취하려고 의도하고 약간의 행동의 변화를 알린다. 그렇지만 비록 문제행동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 단계에 있는 개인들은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넷째, 행동단계에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동, 경

힘, 환경을 바꾸는 단계이다. 행동은 가장 현저한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를 요구한다. 행동 단계에서 이루어진 문제행동의 변화는 확실히 보여지는 경향이 있으며 굉장한 외부의 인정을 받게 되는 단계이다. 다섯째, 유지 단계는 행동 단계에서 얻은 것을 계속하고 더 문제화된 기능의 수준으로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유지 단계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종종 수년 동안 지속되거나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결 과

사례에 대한 맥락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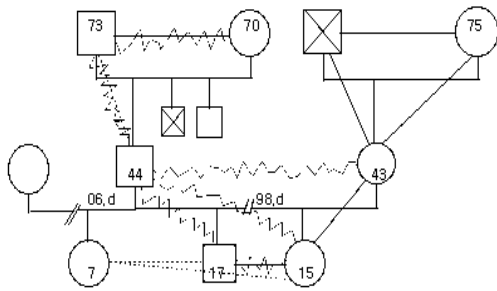


그림 1. 가계도

학습 동기가 낮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가 가족치료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당시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들은 8세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되어 어머니와 살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3세 때 친조부모에게 보내졌다. 그 때 당시 아들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고 아들은 친조부모,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 아들이 16세가 되던 해인 2006년도에 아버지가 재혼에 실패하게 되자 그 후부터 아버지와도 함께 살게 되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주로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칭찬, 애정 표현 등의 정서적 교류 부족·욕설과 폭력의 사용·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심문하듯 이야기하는 태도·일방적이고 비타협적이며 지시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버지와 갈등이 깊어져갔으며 이로 인해 아들은 밤늦게까지 배회하다가 집에 들어가거나 아버지가 귀가했을 때 자는 척 하는 등 아버지와 관계를 회피하였다. 아버지와 갈등은 아들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의욕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의욕 절하를 가져오게 하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와 의사소통 문제 외에도 분노조절이 안 되는 점, 아버지가 재혼에 실패한 것 등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태였고, 아들은 가족문제에 있어서 변화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으며 아버지가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를 가졌고 학력 역시 좋은 편 이어서 아들의 나태한 생활습관, 낮은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로 아들을 비난하는 입장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분노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다가도 가족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자녀들이며 변화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또한 초혼과 재혼의 실패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유복하고 지지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 결혼하게 되었는데 폭언을 일삼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자녀들을 위해 재결함을 원하고 있었다. 자녀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며 자녀들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족문제에 대해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위해 시도해왔던 기능적인 몇 가지의 방식들도 가지고 있었다.

아들은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둘째 여동생은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로부터 태어난 배다른 형제였다. 아들과 두 여동생과의 관계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두

여동생간의 관계는 소원한 편이었다. 이는 아버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못된 것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아버지는 언니인 첫째 딸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배 다른 자녀인 둘째 딸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감싸기만 하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었다. 또한 둘째 딸은 이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친조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배다른 형제인 오빠와 언니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고립된 채 살고 있는 일종의 “희생양” 같은 존재였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오고가며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져 왔다.

치료자는 사춘기 자녀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자녀에게만 국한시키기에 앞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치료자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일방적인 양육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버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변화를 느낀 자녀들은 자신들도 변화해야겠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의사소통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형제하위체계를 강화시키고자 새로운 가족 구조의 변화도 시도하였는데 이는 두 자매간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둘째 딸과 아버지와의 밀착된 경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반면 자녀들 간의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치료과정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

전체 상담회기에 따른 변화과정 요약

전체 회기는 총 10회기였으며 회기별에 따른 대상자, 상담의 주요내용 그리고 변화과정은 표 1과 같다.

초이론적 모델에 입각하여 본 가족의 변화과정 요약

(1) 전인식 단계에서 보이는 가족들의 “저항”

치료과정의 초기에서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자신의 가족들 사이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음에 대해 막연하게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변화를 위한 자신들의 몫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가족구성원이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치료과정 초기에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은 치료자에게 “상대가 변화하기를 혹은 치료자가 상대를 변화시켜주기를 희망 한다”는 상담에 대한 기대를 털어놓고 있었다. 또한 전인식단계의 특성처럼 다른 이유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

아버지 : 저는 개(아들)한테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첫째 딸)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큰 애(아들)는 게으르구요. 『4회기』

어머니 : 애들 아빠는 이 상담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바뀌기를 바라죠. 자기가 도대체 어디가 부족하냐고 하면서.. 『1회기』

아들 : 아빠 만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전해주세요. 저는 아빠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꿈적도 안할 거 같아요. 『2회기』

첫째 딸 : 아빠가 먼저 친밀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아빠가 개선된다는 생각은.. (안해요) 그리고 아빠가 친밀하게 대해준다 해도 그렇잖아요. 어색한 거.. 한번 그런 고비를 넘겨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 어색한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3회기』

표 1. 상담 회기별 변화 과정 요약

회기	참여자	상담의 주요 내용	변화과정의 내용
1	어머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담자가 바라본 문제의 기술 ② 내담자와 가족의 일반적 사항 파악 (학력, 직업 등) ③ 가족구성원 간 관계 파악 ④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및 대처방식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 - 부자간 - 부녀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母 : 변화가 필요함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부부 관계 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음.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도하고자 노력해왔던 몇 가지의 효과적인 방식들이 있었음. - 父 :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긴 했으나 (상담에 대한 기대도 있음) 변화가 필요한 대상은 결국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2	어머니 아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제의 기술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무엇인가?) ② 갈등상황에서 아버지와의 의사 소통 방식 및 대처방식 탐색 ③ 기타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탐색 ④ 아버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맥락적 이해 : 아버지의 원가족에 대한 이해 - 친조부 → 부 → 아들로 이어지는 (다세대 전수과정) 의사소통방식의 유사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父 : 두 번의 이혼에 대한 실패와 원인을 상대 배우자에게 돌리는 전인식단계의 모습을 보임. - 아들 : 아버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치료자가 아버지를 변화시켜주기를 희망함. 변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하지 못함. 친조부와 부가 분노조절의 어려움에 있어서 닳아 있음을 인정하나 이것이 원가족에서의 문제라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함. - 母 : 남편의 원가족에서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치료자를 통해 인식하게 됨. (분노조절의 어려움, 정서적 교류의 부족,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
3	첫째 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딸이 바라보는 부자관계 탐색 (갈등 상황에서의 표현방식 및 대처방식 등) ② 딸과 기타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탐색 : 딸은 아버지보다 할머니와의 갈등을 주로 호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父 : 자신이 분노조절에 많이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음.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변화하길 바라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함. - 딸 : 치료자를 통해 친조부와 부가 의사소통 방식이 유사함을 인식함.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변화하기를 바랍.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함. (어색함으로 인해)
4	아버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버지가 바라보는 부자관계 탐색 ② 부부관계의 패턴 탐색 (특히 갈등상황에서의 패턴) ③ 아버지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맥락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父 :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표현방식이 일방적이고 공격적임을 인식하게 됨.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아버지와 유사함을 인식하게 되고 원가족에서 사용해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식하게 됨. 또한 대화내용보다는 표현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치료자를 통해 알게 됨.
5	아들 첫째 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두 자녀와 배다른 형제간의 관계 탐색 ② 자녀 하위체계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시도된 해결 방식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매 : 두 남매간의 시도된 해결 방식 인식 (수용되고 이해받지 못한 느낌으로 인해 감정 교류를 차단해 버리는 방식) 또한 새롭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시도 (가치판단을 뒤로 하고 화자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화자 편을 들어 줌으로써 상대가 수용 받았다는 느낌을 느끼게 함)

회기	참여자	상담의 주요 내용	변화과정의 내용
6	아버지 아들	① ~부자관계에서 시도된 해결 방식에 대한 탐색 : 칭찬과 감정 교류, 상의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풀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옴. ② ~다세대 전수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인식 : 감정의 교류가 빈약한 의사소통 패턴이 친조부→부 →아들로 전수되고 있음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함. ③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시도	- 父子 :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대한 느낌을 공유함. (칭찬에 대하여 - 부자 간 서로에 대한 칭찬을 처음 표현하게 되었고 상대에게 칭찬을 들은 느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됨)(절충에 대하여 - 지시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됨)
7	아버지 첫째 딸	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결과에 대한 점검 (관계 변화에 대한 탐색) ②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계속적인 시도 ③ ~여전히 남아있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탐색	- 父 :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딸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었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욕하기가 중단되고 대화로써 설명하기 시작함) 아버지가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 딸 : 아버지에게 감정표현을 하기 시작함. (정서적 교류의 교환 - 안쓰러움을 표현함) 또한 대화방식이 바뀐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자신도 변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
8	아버지 아들 첫째 딸	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결과에 대한 점검 (부자간, 부녀간 관계 변화에 대한 탐색) ② ~가족관계 재구성 :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자녀들의 의사 듣기, 배다른 형제인 둘째 딸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형제 하위체계 강화 시도 ③ ~여전히 남아있는 역기능적인 시도된 해결 방식 탐색	- 딸 : 대화방식이 바뀌면서 아버지와 편안해진 관계를 경험함. (문자메세지, 대화 등에서 감정의 표현을 조금씩 하기 시작함) - 아들 : 아버지와 편안해진 관계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되었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상승하게 됨.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것을 중단함. - 父 :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효과적으로 시도함. 형제하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다음 회기에 둘째 딸과 함께 참여하기로 함.
9	아버지 둘째 딸	① ~형제하위체계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역기능적인 시도된 해결방식 탐색과 그 영향에 대한 파악 : 배다른 형제인 둘째 딸의 고립이 더욱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옴을 인식시킴. ② ~형제하위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 시도 ③ ~둘째 딸의 억눌린 감정 읽어 주기	- 父 : 자매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됨. 지금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 온 방식이 역기능적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새롭고 기능적인 방식을 인식하게 됨. - (둘째) 딸 : 자신의 감정을 오픈하고 이해받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함. 이에 대해 속 시원함을 표현함. (억눌린 감정에 대한 표출)
10	아버지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결과에 대한 점검 (부자간, 부녀간 관계 변화에 대한 탐색) ② ~여전히 남아있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탐색 ③ ~가족의 재구조화 시도 : 두 자매간 감정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형제하위체계를 강화시킴. ④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의 재구조화 문제 - 둘째 딸의 거취 문제 - 엄마의 재결합 의사에 대한 문제	- 父 : 아들에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손찌검을 중단함. - 아들 :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상승함. 아버지가 자신을 격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함. - (첫째) 딸 : 아버지와 친근해짐을 느낌.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여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함. 처음에 걱정했던 "어색함"을 간간히 느끼지만 이를 극복하고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아빠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함. - (둘째) 딸 : 가족에서 고립된 느낌을 가졌던 자신의 슬픔을 언니에게 처음 고백하게 됨. 이로 인해 두 자매가 서로의 감정을 처음으로 교류함.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음을 알게 됨)

(2) 인식단계에서 보이는 가족들의 “변화된 인식과 새로운 통찰”

상담과정을 통해 치료자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아들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 낮은 학습동기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부자관계 및 부녀관계를 계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음을 인식시켰다.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칭찬, 애정표현, 스킨십 등의 정서적 교류가 부족했고 욕설과 거친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버지의 일방적, 지시적, 공격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두려운 존재로 느끼게 하여 피상적인 대화만을 나누거나 피하는 방법을 택하게 하였다. 치료자는 아버지에게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유사하게 전수되어 오고 있는 원가족의 문제라는 것도 인식시켰다. 또한 치료자는 남매에게 남매관계에서도 존재해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이 있음을 인식시켰다.

■ 아버지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아들의 낮은 학습 동기 유발에 대한 인식과정

치료자 : 본인이 공부에 의욕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없는 게 아니거든. 아빠한테 욕 듣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거지.. 본인이 초래했다기 보다는 말(아빠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의미)로서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말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사소통 문제)에 신경 쓰면 진로를 찾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2회기』

■ 아버지가 사용해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인식과정

치료자 : 아드님 같은 경우 아빠는 사랑의 표시가 물질적으로 해결하시는 거 같대요.

어머니 : 네. 표현 방법을 모르는 거 같아요.

아들 : 엄마랑 얘기해보면 아빠가 절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손톱만큼도 못 느끼겠어요. 표현을 안 하니까.. 생일인데 그러면 돈 많이 주시고.. 그런 쪽에서는 해주는 거 같아요.

치료자 : 사랑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돈은 아니

라는 거지?

아들 : 네. 『2회기』

치료자 : 넌(아들) 엄마를 만나면 대화하잖아

아들 : 절 꾸중하셔도 달게 들리죠.

치료자 : 왜일까?

아들 : 말투가 저를 수용해주는 거 같고.

치료자 :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충고를 하는데 엄마는 너를 존중해주고 엄마가 니 편 들다가 엄마로서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빠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충고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아들 : 네. 『5회기』

치료자 : 너는 아빠가 친근하다기 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건데.. 그 표현 방식을 보고 싶은데 해줄 수 있니?

아들 : 아까처럼 술.. 고등학생이 90%는 술 마시는데.. 뭐야 너 이 새끼 술 마셨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너 무 반듯한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 했을텐데 전혀 몰랐다는 뜻이..

치료자 : 네가 무슨 잘못을 하면 심문하듯이 그러신다는 거지? 주로 너를 비난하거나 공격한다고 느끼니?

아들 :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예요. 대화라기 보다는 욕이 더 많으니깐.. 『5회기』

■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이 다세대 전수되어 오는 것에 대한 통찰과정

치료자 :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하시다가 애가 방에 이부자리 안 개니깐 접시를 날렸대요. 손자 앞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는 분노조절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드님(아버지를 의미)이 닦았어요.

어머니 : 어머.. 할아버지도 그러시구나. 『2회기』

치료자 :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방식이랑 아버지가 대화하는 방식이랑 유사점을 느끼는 거 같애요?

첫째 딸 : 네. 똑같애요. 분노 표출하는 방법에서 할아버지랑 아빠랑.. 『3회기』

아버지 : 저희 아버지가 말재주가 없어요. 저도 그걸 싫어했는데 알게 모르게 닮고.

치료자 : 네. 아버님도 뉘네 할아버지랑 대화가 잘 안 되셨어요. 제 말은.. 다세대 전수 과정인 것처럼 아드님도

아버님이랑 대화가 안되시구요 『4회기』

■ 남매 관계에서 시도되어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인식과정

치료자 : 동생과 할머니가 부딪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 : 안 해요.

치료자 : 왜일까요?

첫째 딸 : 말해봤자니깐요.

치료자 : 말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동생이 방금 나한테 말할 땐 느낌이 어땠죠?

첫째 딸 : 내 편 들어준다는 느낌.

아들 : 애의 말을 직접 들으니깐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치료자 : 그렇죠. 누가 옳고 그른 건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은 각자의 입장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지요. 아까 지금 동생이 자기편을 들어주니깐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가치판단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쪽 편을 들어주라는 거지.. 그럼 훨씬 말하는 방식에서 좋아질거라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가 걸려 있는게 동생은 자기 편이 없다라는 거.. 그 생각이예요 『5회기』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을 보았을 때 아들이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배경에는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인하여 아들의 학습동기 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할아버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남매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전반적인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배다른 자매관계에 까지 나타나고 있다(4)의 ‘자매 간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의 시도’ 참조). 한편, 치료자의 질문을 통하여 가족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인식과정을 경험하였다.

(3) 준비단계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에 대한 “약간의 변화”

- 가족 구성원 간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시도

가족구성원들에게 지금까지 자신과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 시도해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한 후 치료자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게 되자 가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상대의 변화된 모습을 본 각 가족구성원들은 “자신이 더 많이 변화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자신의 몫을 더욱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부자 간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시도

치료자 : 아드님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세요?

아버지 : 왜요.. 애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해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나마 좀 낫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는 연습장 쓰는 것도 달라졌구요,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칭찬한 적은 처음이네요.

치료자 : 이런 얘기 처음이예요? 아들도?

아들 : 네. 그전에는 중립적인 표현.. 열심히 해라.. 뭐 이런거.. 『6회기』

■ 부녀 간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시도

치료자 : 딸에 대해 마음이 안쓰러우시다는 거죠?

아버지 : 그렇죠.. 뭐.. 처음이예요. 이런 말 한겨.. 너(큰 딸) 처음 듣지?

첫째 딸 : 네. 저도 어떤 땐 아빠가 안쓰럽고 그래요..

치료자 : 아빠는 너가 안쓰럽고. 너는 아빠가 안쓰럽고.. 따님이 아빠 모습에서 안쓰럽다는 거 처음 들으시죠?

아버지 : 네. 처음이죠. 애가 그런 생각 하는 줄은 처음.. 많이 컸네요.

치료자 : 이런 감정을 서로 그대로 전달했다라면 훨씬 관계가 좋아졌을꺼예요.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버지 : 제가 먼저 변해야지.. 제가 조금씩 더 노력해 볼게요 『7회기』

치료자 : 집에서 아빠하고 대화하는 거랑 여기서 대화하는 거 차이점 느꼈니?

첫째 딸 : 네.

치료자 : 어떤 차이점?

첫째 딸 : 아빠가 먼저 대하는게 달라요. 다르게 얘기하세요. 내가 방을 안 치운 걸 보면 지금은 니가 방을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깐 이제는.. 나도 그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7회기』

■ 부자녀 간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시도

치료자 : 아버지가 다정하게 표현하셨다고?

아들 : 제가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더 늦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첫째 딸 : 원래도 그랬는데?

아들 : 예전엔 “어디냐”고 했지. 어젠 “더 늦냐.” 그게 어디야

첫째 딸 : 맞아. “어디냐”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당장 가야지..

치료자 : 하하하.. 표현이 바뀌셨네. 혹시 아버지 입장에서는 따님의 표현 방식이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 : 애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첫째 딸 : 내가 문자 보낼 때 느낌표 붙여서 보냈어.

아버지 : 아.. 맞아.. 그거는 좀 변했더라. 『8회기』

(4) 행동단계에서 보이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저한 행동의 변화”

- 빈번한 감정의 교환으로 인해 편안해진 가족 관계
- 형제하위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시도

(3)번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칭찬, 감정의 교환과 같은 정서적 교류가 시작되는 등 가족들의 관계에 변화가 시작되자 주 호소 문제였던 아들의 낮은 학습동기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부자 및 부녀와의 의사소통에서 빈번한 감정의 교류가 오고가자 가족관계가 더욱 편안해짐을 볼 수 있었다.

치료자 : 요즘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니?

아들 : 훨씬 친근해졌죠.

치료자 : 예를 들어 줄래?

아들 : 그니깐.. 방에서 공부하다가.. 얼마전까지 시험기간이었으니깐 예전엔 (아버지가) 들어오면 막 방해되고 싫어했었거든요. 이제는 나를 격려해주는구나 하는 느낌..

치료자 : 나도 놀랍구나. 공부에 대한 의욕은 달라졌니?

아들 :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전보다는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치료자 : 너(큰 딸)는 좀 어때?

첫째 딸 : 좀 편안해지고. 딱 같이 있으면 예전엔 어색하고 불편하고. 지금은 아 물론 지금도 어색한 감은 있지만 좀 더 친근해지고.

치료자 : 그 친근한 감정을 어디서 느끼니?

첫째 딸 :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막 좀 더 뭐 얘기를 더 꺼내서 대화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 아빠의 생각을..

치료자 : 어 그래? 시도는 해봤어?

첫째 딸 : 뭐 간간히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고..

치료자 :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변화를 느끼세요?

아버지 : 네. 일단 어프로치 하는 게 자주 하는 거 같고.. 지금 애가 말한대로.. 『10회기』

치료자는 다음으로 가족의 재구조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바로 남매와 배다른 형제관계에 있는 둘째 딸을 상담에 참여시켜 형제하위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둘째 딸인데 가족의 희생양이 되어 고립된 존재처럼 살아온 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이해받는 상담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첫째 딸과 둘째 딸 사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치료자는 아버지로 하여금 형제하위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역기능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형제하위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특히 자매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인식하고 시도할 수 있게 하였다.

■ 둘째 딸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시도

치료자 : 그래그래.. 너가 아프구나. 언니가 널 저버리는 거 같아서 슬프구나. 너 그런 감정을 언니한테 말 할 수 있어? 내가 언니 방 들어가고 싶은데 달혀서 내가 들어가

지 못해서 속상하고 슬프다 하는거 얘기할 수 있어?

둘째 딸 : (끄덕끄덕)

치료자 : 그래그래.. 너가 그 얘기를 털어놓으면 언니랑 사이가 또 달라지거든. 많이 속상했구나. 언니하고 관계에서 슬프니? 아니면 다른 거에서 슬픈게 있니? 없어? 언니랑 관계가 슬퍼? 아 그렇구나.. 그런 거 왜 얘기 하지 못했니? 아빠하고 제일 친하다면서..

아버지 :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나이는 아직 안되고.. 『9회기』

치료자 : 지난 주에 집에 가면서 어땠어?

둘째 딸 : 몰라

아버지 : 얘기 해봐. 너 그날 얘기하고 가서 아빠한테 차 안에서 무슨 얘기 했어. 속이 다 시원하다고..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얘기해봐.. 『10회기』

■ 형제하위체계 강화를 위한 부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치료자의 제안

치료자 : 저는 막내 따님이 식구로서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배다른 형제라도.. 형제 하위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평상시에 큰 따님이 언니로서 대우를 아버지께 잘 받았다면 애(둘째 딸) 처지를 잘 배려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언니 눈에 들어야 된다고 봐요. 가장 친해야 할 사람이 언니인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아버지 : 작은 딸은 아직 어리고 이쁘고 애착같은 것도 있어요. 애교도 큰 딸보다 훨씬 많구요.

치료자 : 그 막내가 왕따라는 거 아시죠? 아빠의 입장에서 막내가 더 안쓰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싸고 도는 방식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명의 딸 사이에 자꾸 개입해서 작은 딸 편을 들면 오히려 아빠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아빠가 하시는 중재자 역할이 좋은 거 보다는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9회기』

■ 자매 간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시도

치료자 : 막내가 많이 울었어. 언니한테 접근하고 싶은데 언니가 항상 문이 닫혀있대

첫째 딸 : 시험 기간 때문에..

치료자 : 근데 막내는 언니가 그러면 자기가 거절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때 너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표현 해봐. 네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둘째 딸 : 안해

치료자 : 안하는거야? 못하는거야?

둘째 딸 : 안해

치료자 : 니가 그랬잖아. 너가 언니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언니는 너를 거절하는 거 같다고 그랬잖아..

둘째 딸 : 그냥 마음 먹고 가려고 하면 언니는 문을 확 닫아버리잖아. (흑흑흑)

아버지 :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렸구나

둘째 딸 : (흑흑흑)

치료자 : 언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말해봐

둘째 딸 : 뭐 시간 날 때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흑흑흑)

첫째 딸 : 할머니랑 그런 얘기 했는데..

치료자 : 무슨 얘기?

첫째 딸 : 막내가 있어서 집이 시끄러우니깐 생기가 난다고..

치료자 : 그런 얘기를 직접 해봤어?

첫째 딸 : 저 원래 그런 거 티 안내요

치료자 :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말이야. 너는 그런거 못 느꼈지? 언니도 안하고.. 너도 안하고.. 집안 문화가 표현을 안 하는 문화잖아요. 이런 표현하고 안 하는거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버립니다. 『10회기』

치료자는 가족성원들, 즉 부자 간, 부녀 간, 부자녀 간, 그리고 자매 간에 지금까지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시도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였고, 특히 부에게는 두 딸 사이에서 위계질서 상에서 첫째 딸에게 권위를 실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고 아버지는 두 딸 사이에서 중재자 노릇을 해왔던 자신의 방식이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그러한 방식을 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은 연구 문제 2번과 3번에 대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각 가족구성원들은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문제에 대한

변화 단계	유지 단계							●	●	●	
	행동 단계							○	○	○	
변화 단계	준비 단계							■	■	■	
	인식 단계				●	●	●	●	●	●	
전인식 단계	아버지 ●	아들 □	딸 ○	○	○	○	○	○	○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변화 과정	아버지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보다 자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			대화내용보다 표현 방식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됨, 원가족에서 전수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인식함		부녀간의 정서적 교류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시도하는 현저한 행동 변화를 시작함	부녀간의 새로운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함 (적극적인 대화 시도, 부드러운 말투와 문자 메시지)	가족 간의 관계 변화가 일어나자 가족의 재구조화라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함	손짜짐을 중단하는 등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유지함	
	아들		치료자가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기를 희망함			남매간의 시도해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인식, 새롭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함	부자간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시도함 (칭찬과 수용에 관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느낌도 경험함	아버지와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을 시작하면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상승됨, 더 이상 아버지와외의 관계에 대해 긴장하지 않음	격려 받는 느낌을 느끼며 공부에 대한 의욕을 유지 시킴		
	첫째 딸			치료자를 통해 아버지가 변화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관계개선을 부담스러워 함				아버지와 같음	아버지와 같음	아버지와외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적극 수행함, 처음에 걱정하던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함	
	둘째 딸									감정 표현이 차단된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을 인식하고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봄	
변화수준		아버지 ↓	아들 ↓	첫째 딸 ↓	아버지 ↑	아들과 첫째 딸 ↑	아버지와 아들 ↑	아버지와 첫째 딸 ↑↑	가족 모두 ↑↑	가족 모두 ↑	가족 모두 ↑↑
↓ 문제인식 못함, ↑ 문제 인식으로 인해 변화가 시작됨, ↑↑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변화를 함											

그림 2. 초이론적 모델에 따른 각 가족구성원들의 변화추이와 MRI 적용에 따른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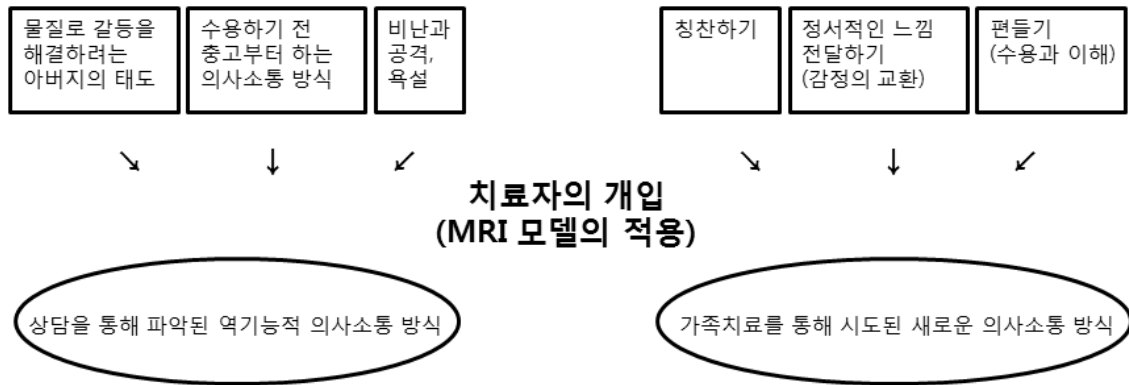


그림 3. 가족치료 후 변화된 대화방식

전인식단계로부터 인식단계→준비단계→행동단계 등의 순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계의 변화에 따라 상담의 효과도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태도는 상담의 진전과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회기부터 3회기에서는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전인식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치료자의 개입으로 인해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은 인식단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회기와 5회기에서 각 가족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던 의사소통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각 가족구성원들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자녀 문제에 대한 전인식단계에서 인식단계로의 변화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가장 진지하지 않게 생각해왔던 첫째 딸의 태도를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가족구성원들의 획기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 회기는 7회기부터인데 6회기까지 이어진 치료자의 개입(각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게 하였고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잘못된 방식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시도를 치료자 앞에서 시도

해보는 MRI 모델의 적용)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사례에서 치료자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대상으로 보고 개입했던 아버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6회기부터 아들과 첫째 딸에 대한 상담의 효과도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이 의뢰되었던 우선적인 목표가 달성되자 치료자는 9회기부터 새로운 가족 문제였던 형제하위 체계 강화를 위한 개입을 하였는데 이미 변화가 시작된 이 가족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식단계를 거쳐 행동의 변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춘기 자녀와의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가족 치료 후 이 가족의 변화된 대화방식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 3과 같고 이는 연구 문제 4번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방황하는 아들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기술하였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 가족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동기가 낮은 청소년의 문제에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학습동기를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버지와 지속해왔던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아들은 낮은 자존감, 삶에 대한 의욕 절하 등의 문제로 낮은 학습 수행능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치료자는 MRI 모델을 활용하여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문제해결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시도하게 하였다. 아버지의 변화는 자녀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가족구성원 모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습득하게 되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관계 변화는 아들의 학습동기를 높여주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전제된 부모-자녀 관계회복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 14 1~7줄에 제시된 축어록 참조)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이혼 가정이라는 구조적인 결손과 함께 빈약한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기능적인 결손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치료자가 기능적 결손을 회복시키자 가족들의 관계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구조적 결손이 있다하더라도 기능적 결손에 대해 개입하고 치료하면 가족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사례의 초기상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변화가 문제해결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생활주기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단계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부모의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치료자의 관점에 따라 아버지가 전인식단계에서 인식단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자 자녀들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신이 변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면 나아가서 다른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가족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pp. 12~14에 제시된 축어록 참조)

넷째, 치료자는 MRI모델의 적용을 통해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이것이 관계개선에 있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혹은 오히려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악화시켜왔음을 전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인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소개하였다. 가족들은 지지하기, 정서 교환하기, 편들기 (수용과 이해)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자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pp. 12~15에 제시된 축어록 참조)

본 사례는 둘째 딸의 거취 문제의 불확실성, 어머니의 재결합 의사에 대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들 간의 합의라는 두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 추후 이 가족이 겪을 어려움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었던 아들의 낮은 학습 동기는 아버지와의 관계회복을 통해 해결됨으로써 가족치료의 효과성을 보여 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하나의 사례만을 가지고 접근하였기에 낮은 학습동기를 갖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낮은 학습 동기를 갖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족치료 모델의 적용 사례들이 연구되고 개입의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태 외 9명 (2006), 학교부적응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연구,
<http://blog.naver.com/pyjune114/150001728494>
 김영희, 안상미 (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 김혜숙 (2008),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 박태영 (2001), 가족치료 이론의 적용과 실천. 서울: 학지사.
- 박태영 (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박태영 (2007), 도벽과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재혼가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43-158.
- 박태영 (2009), 마리아나 피는 아들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57-96.
- 박태영, 김태한 (2008),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3, 263-302.
- 박태영, 김혜선 (2008), 가족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내담자 부모의 저항에 대처하는 치료자의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25.
- 박태영, 박소영 (2007), 성폭력을 당한 여중생의 가족치료 사례분석: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서기,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57-96.
- 박태영, 은선경 (2008), 가출청소년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회기진행에 따른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49-66.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5), 부모 간 갈등과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Creswell (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5th ed)*, Pacific Group, CA: Brooks/Cole.
- Miles, B. M.,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Park, T. Y., Cho, S. H., & Seo, J. S. (2006), A qualitative analysis of compulsive buying case by a grounded theory method,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2), 239-249.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Prochaska, J. D., & Norcross, J. C. (2002), *Systems of psychotherapy: A transtheoretical analysis (5th ed)*, New York: Brooks/Cole.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Norton.
- Weakland, J. H. (1993). Conversation-but what kind? In S. Gilligan & R. Price(Eds.), *Therapeutic conversations*, New York: Norton.

원 고 접 수 일 : 2009.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0. 20.

게재결정일 : 2009. 11. 16.

A Case Study of Family Therapy: Conflict between a Father and His Son with Low Motivation

Tai-Young Park Jin-Young Park
Soongsil University

This case study describes the process of family therapy with a complaining problem of a son's low motivation on school work due to a conflict between the son and his father. Adopt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 the change process was explored and examined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MRI model, (b) the change process, based on Prochaska and Norcross's transtheoretical model, among family members was observed, (c) it was attempted to find the therapist's intervention techniques, which promote th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and (d) it was attempted to find the process of change on the communication style and family relationships through the therapy. As the therapy progressed, the family became aware of their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s, learned new communication skills, showed signs of changes in family dynamics, and accordingly, the son's motivation on school work had increased. Specifically, once the father accepted the necessity to change his own communication style, whole family dynamics were started to transform. This study shows how a family member's initiation to change his/her communication style may affect whole family dynamics. Implications to working with families with adolescent sons and daughters are discussed.

key word : dysfunctional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 family therapy, qualitative analysis

원고 투고 규정

◆ 원고 투고 일반사항

1. 학술지명

본 학술지의 명칭은 「청소년상담연구(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이다.

2. 발간 회수 및 시기

- 1) 본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회수를 늘이거나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 2) 발간 시기는 7월 31일(1호), 11월 30일(2호)이다. ③ 논문을 수시로 접수하되, 1호는 4월 30일, 2호는 8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3. 발간 언어

- 1) 본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어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 2)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영문으로 하도록 하고,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한글로 하도록 한다.

4. 투고 자격

- 1) 본 학술지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청소년상담 관련학과 교수,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관련 상담원(연구원)으로 한다.
- 2)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5. 투고 원고의 종류

투고 원고의 종류는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논문, 정책 연구, 사례 연구, 조사 연구 등에 한한다.

6. 투고 원고의 내용

- 1) 제출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나 인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 2)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 3)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7. 투고 편수의 제한

1인의 연구자가 한 호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은 단독 연구 1편과 공동연구 1편으로 제한한다.

8. 원고 작성 및 제출

- 1) 원고는 반드시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본은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www.kyci.or.kr)에서 웹 상으로 접수한다.
- 2)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9. 저자 구분

- 1) 2인 이상이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처음 명기하며, 공동 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 2) 교신 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10. 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의 심사료는 투고자 부담을 원칙으로 논문 투고시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 2) 게재료는 본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투고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 3) 투고자가 별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11. 본 규정이나 원고 작성 지침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고 작성 지침

1. 원고 작성

모든 원고는 한글 97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字로 표시하거나 괄호()속에 원어를 써 넣는다.

2. 논문 투고자의 성명

- 1) 논문 투고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2) 공동저자의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를 따라 차례대로 제시한다.

3. 원고 순서

- 1) 원고의 순서는 제목, 한글초록, 서론(문제의 제기, 목적, 필요성 등 포함) 또는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이때 원고의 본문과 영문 초록에는 투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않는다.

4. 원고 작성 분량

- 1) 원고 작성의 분량은 아래 원고 편집 규격을 맞추어 A4 용지 10페이지 내외로 하며, 최대 15 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 2) 한글 초록과 영문 초록의 분량은 한글의 경우 1000자 내외, 영문의 경우 800 단어 내외로 하며, 하단에 검색을 위한 주요어(key words)를 제시한다.

5. 자료 제시

자료(통계 자료, 행정 자료 포함)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자료 수집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6. 인용

- 1)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 2)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 3글자씩 들여 쓴다.

7. 각주와 후주

- 1) 후주(endnote)의 사용은 금하고 그 대신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 2) 각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 3) 각주를 표기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윗편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8. 본문 내의 인용 문헌

-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류관순(1999)은... 류관순(1999, p. 25)은...

-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이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예) 한 연구 (류관순, 1999)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 (류관순, 1999; Benning, 1999)에 의하면...

- 3) 누구 등 또는 et al.을 쓰려면 먼저 본문 중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전원 소개된 다음 두 번째 인용될 때부터 한다.
- 4)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처음 인용 때부터 저자의 이름을 모두 쓰지 않고 첫 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9. 그림과 표 : 그림과 표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 1) 표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줄을 긋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써 넣고,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 넣는다
예) 그림 1. 실험 I의 자극재료
예) 표 1. 평균화상반응수
- 3)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
예) 그림 1에서... 표 1에서...,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10. 참고문헌 작성
 - 1) 참고문헌에서의 문헌 나열은 먼저 동양어 표기 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2) 참고문헌 작성은 국내와 국외에 따라, 단행본과 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에 따라 다음의 원칙과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① 단행본의 경우: 저자, 발행년도, 서명, 발행처 소재지 및 발행처
예) 김준호 (1989).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서울 : 범문사.
예) Airasian, P. W. (1991). Classroom assessment. NY: McGraw-Hill.
 - ②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잡지명, 권(호)수, 쪽수
예) 설기문, 김기주 (1998). 상담에의 현상학적 접근. 대학상담연구, 7, 203-222.
예) Brookhart, S. M., & Freeman, D. J. (1992). Characteristic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 37-65.
 - ③ 발행기관이 다른데도 정기간행물의 명칭이 같은 경우나 특정 대학에서 발간하는 경우 :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잡지명, 쪽수, 발행기관.
예) 김성희 (1995). 주장훈련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6(1), 1-50.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④ 학위논문의 경우 :
예) 백옥현 (1992). 아동의 선택적 주의 전략과 금지 기제의 발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⑤ 번역서인 경우 : 원저자명, 원서발행년도, 원서제목, (번역자 명. 번역서 명). 발행처.
예)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해림, 장성숙 역. 집단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 ⑥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한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검색주소.
예)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 정보화실태조사결과.
http://www.nic.or.kr/www/press_1.html에서 검색.
Nua, Inc. (2002). How many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nua.ie/surveys>.
- 3)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

지는 모두 소문자로 쓰도록 한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11. 글씨체 및 크기 : 본문, 한글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의 글씨체 및 크기 등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① 본문

글자모양 : 휴면명조체, 장평 95, 자간 -6, 크기 10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정렬방식 : 양쪽 정렬

용지설정 : 용지종류 A4, 용지방향 좁게,

여백주기 : 위쪽 23, 아래쪽 23,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 말 15, 제본 0

단 설정 : 일반단, 단 개수 2, 너비 76, 간격 8, 단 방향 왼쪽부터

머리말 설정 : 위치 양쪽, 크기 9, 왼쪽 0, 오른쪽 0, 장평 95, 자간 -6, 정렬방식 가운데, 첫줄 보통, 줄간격 170, 짝수 쪽-저자명, 홀수 쪽-논문제목

표 안 글자모양 : 휴면명조체, 장평 95, 자간 -5, 크기 9

② 한글초록

글자모양 : 휴면명조체장평 95, 자간 -6, 크기 9

문단모양 : 왼쪽 30, 오른쪽 3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70

(* 주요어: 스타일 주요어, 문단모양: 왼쪽 30 오른쪽 30, 보통 줄간격 170, 크기 8, 장평 95, 자간 -6, 양쪽정렬 휴면고딕체)

③ 연구지원 사항 및 교신저자

연구지원사항은 논문 제목에서, 교신저자는 저자명에서 각주 처리 (각주모양*)

글자모양 : 휴면명조체, 장평 95, 자간 -5, 크기 9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5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양쪽정렬

필수항목 : 이름, 소속, 우편번호, 주소, 근무지, E-mail

④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

논문제목 : 스타일 논문제목,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7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가운데

글자모양 : 휴면명조체, 크기 16, 진하게, 장평 95, 자간 -6

저자명 : 스타일 저자명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20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가운데

글자모양: 휴면고딕체, 크기 10, 장평 100, 자간 -7

저자소속 : 크기 10, 휴면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본문 내 제목(예, 방법, 결과): 크기 11, 진하게, 휴면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본문 내 소제목(예, 연구대상) 크기 10, 휴면고딕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본문 내 소제목 1(예, 검사, 척도) 크기 10, 진하게, 휴면명조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표 제목 : 크기 9, 휴면고딕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그림 제목 : 크기 9, 휴면고딕체, 정렬방식 가운데

⑤ 참고문헌

제목 : 크기 11, 진하게, 휴면명조체, 장평 95, 자간 -6, 정렬방식 가운데

내용 : 크기 10, 휴면명조체, 위 0, 아래 0, 왼쪽 0, 오른쪽 0, 장평 95, 자간 -6, 내어쓰기 25, 간격 170, 정렬 방식 양쪽정렬

⑥ 영문초록

제목 : 크기 16, 진하게, 휴면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저자명 : 크기 10, 휴면고딕체, 정렬방식 가운데

저자소속 : 크기 10, 휴면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내용: 크기 10, 휴면명조체(단, 주요어는 이탤릭체), 장평 95, 자간 -6,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줄간격 180, 보통, 정렬방식 양쪽정렬, 탭위치 40.3

12. 기타

- 1) 이상의 원고 작성 양식에 명시되지 않은 원고의 체제 및 기술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간 수정 보완될 수 있다.
-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나 미국심리학회가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5th edition)을 참조한다.